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으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를 통해 본 기독교 사회 윤리-

이춘성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만 살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라는 더 큰 공동체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그 곳을 하나님이 주신 직업과 가정의 소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그 곳에서 자녀들이 교육 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도록 만들며, 공동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원칙과 시스템을 세우도록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종교적 언어만이 아닌 사회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언어’를 다른 말로 ‘사회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기독교인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기독교적 가치가 사회 윤리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 그 이유는 앞서서도 말했듯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적 원리와 가치를 사회의 언어로 풀어내어 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단순히 사회를 기독교화 시키려는 기획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의 생존과 삶, 정체성과 관계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우리는 ‘기독교 사회 윤리’라고 부른다. 어렵게도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사건 이후 한 달도 안 되어 기독교

계의 대표적인 어떤 지도자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책임 소재를 더 이상 따지지 말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기보다는 국가 안전 시스템의 불안함과 사회 구성원들의 비윤리적 태도가 만들어낸 복합적 결과물이었다. 기독교인이라면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하여도 철저히 책임을 따져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개혁하여 바른 사회 윤리를 확립해야한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목사는 교회 밖,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며 성도들의 삶의 터전인 사회와 소통할 능력이 없는 그저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다.

세월호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갈 바를 모르고 좌초하고 있는 세월호와 같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독교는 신앙의 정통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소통함으로써 성경의 선한 가치를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 혼란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사 속에는 시대적 책무를 깊이 깨닫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사회와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시도한 인물들이 있어 왔다. 이들 중 한 인물을 소개하고 그의 지혜를 배우고자한다. 그가 바로 1837년 네덜란

드의 항구도시 마이스슬루이스(Maassluis)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per, 화란어: Abraham Kuijper)이다. 그는 레이든 대학(Leiden University)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교구 목사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1874년 목사직을 사임하고 정치가로서 입문하였다. 이후 그는 저널리스트, 교육가, 하원의원, 총리, 교수, 저술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데 탁월함으로 보여 왔다.

사회 개혁가로서의 카이퍼

하원의원으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한 1874년 어느 날, 카이퍼는 동료 의원들 앞에 서서 “사회 정의를 보장하는 특별 노동법” 제정을 위한 연설을 하고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시골 지역에서, 일곱 살의 어린이가 6일 동안 85시간에서 87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행이 어느 정도로 극에 이르렀나하면,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들마저 새벽마다 물을 끼얹으면서까지 강제로 깨워 공장에 보낼 정도입니다(프람스마, 146).

잠시 쉬었다가 카이퍼는 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책을 꺼내들어 야고보서 5장 1절을 읽기 시작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어 그는 연설을 계속하였다.

만약 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의 귀에는 급진적이고 혁명적으로 들렸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사도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그리스도가 노동자들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프람스마, 146)



지금 읽기

『기독교와 사회문제』

아브라함 카이퍼,

조계광 옮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카이퍼의 연설에 동조한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배의원들은 카이퍼를 세상물정 모르는 목사 출신에다가 37살의 애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과 노력으로 네덜란드 의회는 1874년 어린이의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같은 카이퍼의 열정과 집요함을 두고 그의 반대파 자유주의 언론매체인 알허메인 한덜스블라트(Algemeen Handelsblad)지는 카이퍼를 “열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자라고 칭하였다. 그 후로 이것은 그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1886년에 실시된 국가 공공조사를 통해 1874년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여전히 어린이 노동 착취를 일삼고 있었다는 것이 들어났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카이퍼는 『수공업』(Handenarbeid: Manual Labour, 1889)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야한다고 촉구하였다. 또한 1891년 11월 9~12일 “제 1차 기독교 사회적 회의”를 열어 기독교인들에게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통해 발언하고 행동하도록 촉구하였다. 이것들 중 하나를 소개하면 “노동자는 그에 합당한 값을 받아야하며, 일한 이후에 반드시 쉴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 사회적 회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년에도 계속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이러한 카이퍼의 주장은 백 년이 넘는 지금도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지난 대선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슬

로건은 “저녁이 있는 삶”이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최근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은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을 하루 최소 12시간 보장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였다. 인간다움은 노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쉼에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약 120년 전에 바다 건너 네덜란드의 기독교인 정치가인 카이퍼를 통해 주장되었으며,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인들과 아이들 같은 약자들을 돌보는 확대의 정치와 사회 윤리를 실현하려하였다. 또한 제 1차 기독교 사회적 회의는 당시 만연한 인간 중심적 사상과 프랑스 혁명에 영향 받는 자유주의 사상, 또한 당시 떠오르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상의 무신론적 배경을 철저히 경계하는 선언도 함께 하였다. 이렇듯 카이퍼와 그의 동료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통해 세상을 균형 있게 판단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근대 한국의 주류 사회는 노동조합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복이나 빨갱이, 사회주의자 등의 프레임으로 해석해 왔다. 그러다보니 경제 환경이 기업 중심, 사용자 중심으로 고착되어 왔다. 많은 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마저도 복지와 이데올로기를 구별하지 못하고 일부 기독교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의 논리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보수적인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카이퍼와 그의 동료 기독교인 의원들과 비교한다면 균형을 잃은 태도이다. 보수적이며 정통 신앙을 가질수록 약자를 배려하고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한 내용처럼 균등케하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 개혁가로서의 카이퍼

기독교 사회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만이 아닌 건강한 신앙인들을 길러내야



지금 읽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루이스 프람스마,
이상웅, 김상래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들, 2011.

만 했다. 하지만 카이퍼는 당시 인간 중심적인 자율성에 근거한 근대적 대학 교육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카이퍼는 반혁명당(ARP)의 당수(1878년)가 된 후 교육 개혁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였다. 그와 동료들은 1869년부터 “자유 기독교 학교를 위한 학교투쟁”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독교 학교를 준비해 왔다. 1880년에 설립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Free University)이 그 결실이었다.

자유대학의 설립 목적은 국가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학교를 독립하여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대학 교육 과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지성인을 길러내는 것이었다. 카이퍼는 기독교 신앙과 일반학문,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을 통합하는 교육을 자유대학을 통해 실현하고자했던 것이었다. 이를 위해 자유대학은 국가로부터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는 것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도 받지 않았다. 후에 카이퍼는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고, 자유대학도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카이퍼의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대학 설립과 교육에 대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세상과 교회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진 기독교인들 통해서만 참된 기독교 사회윤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

었다. 그렇다고 카이퍼가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을 많이 길러내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리처드 마우(Richard John Mouw)는 “정치 활동에 관한 의견에서 카이퍼는 우리가 큰 승리들을 전혀 얻을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힌다(마우, 165). 또한 마우는 카이퍼의 사상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메시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메시야의 재림을 기대하며 모든 가능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바른 태도임을 가르쳐 준다고 주장한다.

카이퍼처럼 꿈꾸자

1874년 정치에 입문해서 1920년 사망하기까지 카이퍼는 약 반백년 동안 기독교인 정치가로서 사회 개혁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다. 이러한 카이퍼의 삶과 사상에도 비판받을 것들이 있다.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 그는 식민지 정책을 이끌었던 제국주의자였다. 그는 또한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네덜란드 이주민인 보어인들의 흑인 차별과 노예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 현대적 복지와 노동 개념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는 국가 개입의 최소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쉬움은 카이퍼가 19세에 속한 인물이라 점을 고려해야한다. 제아무리 탁월한 개혁가도 현대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오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카이퍼가 추진했던 정치, 사회, 교육 개혁은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보다 훨씬 개혁적인 것들이었다. 이는 그가 시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꿈꾸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기독교적 가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다. 산상수훈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해야만 가능할 것 같은 것들이 있기



지금 읽기

『아브라함 카이퍼』

리처드 마우.

강성호 옮김.

서울: SFC, 2015.

때문이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해 보여도 성경 속에 있는 가치와 윤리는 기독교인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신자의 변화된 양심이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양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인물이 바로 카이퍼였다. 필자는 이것이 그를 열정적으로 꿈꾸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글 | 이춘성 목사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